

# [한라산 '환상숲길'을 가다(7)]제2코스-③남성대 제1대피소~5·16도로 수악계곡

1960~70년대 한라산 중턱 곳곳 표고재배 호황

입력 : 2009. 05.14. 00:00:00



▲한라산 환상숲길은 제주 표고재배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한라산 옛 표고재배장은 대부분 폐허로 남아 있다. 창고와 작업공간으로 이용됐던 표고재배사는 흥가를 방불케 하는 곳도 있다. 작업 장비도 낡고 녹이 슨 채 버려져 옛 영화를 무색케 한다. /사진=강경민기자

## '환상숲길'엔 제주 표고재배 역사 생생 제주 특산 임산작물 각광... 갈수록 위축 표고자목 무분별 남벌 산림훼손 반성도

한라산 허리를 연결하는 환상숲길은 한라산의 표고재배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지금도 그 명맥이 일부 남아 있지만 한라산 자락에서 생산된 표고는 최고의 임산 소득작목으로 명성을 떨쳤다. 제주지역의 표고재배는 재배 공간이나 방법, 기술에 큰 변화를 거듭해 왔다. 한라산 산림 보호를 위해 벌채가 제한되면서 표고재배자들은 자목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한라산 옛 표고재배장은 대부분 폐허로 남아 있다. 창고와 작업공간으로 이용됐던 표고재배사는 흥가를 방불케 하는 곳들도 있다. 작업 장비도 낡고 녹이 슨 채 버려져 옛 영화를 무색케 한다. 한라산 국유림에서 표고재배를 해온 임업인들은 벌채 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

면 산림당국은 "과거 지나칠 정도로 무분별한 남벌로 한라산 산림이 크게 훼손됐다"며 "한라산 산림이 회복되기 전까지 벌채 허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고수하고 있다.

한라산의 표고재배 역사를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인공에 의해 규모화된 형태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을 효시로 보고 있다. '미개의 보고, 제주도'(1924)에는 일제 강점기 표고재배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1905년 당시 제주에 와 있던 일본인 후지타, 모치즈키, 가미야 등이 인공재배에 의한 표고업을 유망시하고 재배에 뛰어들었다. 이 때 이들은 동영사(東瀛社)를 조직하고 이듬해인 1906년 11월에는 표고재배 전문가였던 다나카 등을 초빙, 시험을 거쳐 재배에 성공을 거둔다.

그후 1909년 9월에는 당국의 인가를 거쳐 사업을 더욱 확장했으며 표고사업에 조직적으로 착수했다. 1919년에는 조선총독부가 한라산 표고버섯을 특산물로 편입함에 따라 더욱 장려됐다. 당시 표고업에 뛰어든 일본인만 10여명에 이르렀다. 생산된 표고는 포장해 서귀포에서 선박편으로 오사카에 이송됐으며 다시 오사카회사에서 위탁판매에 붙여져 중국으로까지 수출됐다. 표고버섯은 해외수출의 호조와 일본에서의 수요 등으로 가격은 계속 뛰었으나 난벌의 결과, 표고자목이 모자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실제로 1924년 즈음만 해도 당시 표고버섯 재배구역은 (한라산)동남부의 화전 위쪽으로서 그 면적은 5천여 정보(1500만평)에 이르렀다.



▲일제 강점기인 1924년 전라남도제주도청이 펴낸 '미개의 보고, 제주도'에 소개된 제주도 지도. 이 지도에 당시 한라산 일대 표고버섯 재배장(원 표시)이 표시돼 있다.

제주에서 표고가 본격적으로 인공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제주에서 표고 생산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훨씬 이전부터 한라산에서 채취해 소비되고 반출돼 왔다는 기록들이 있다.

'한라산 삼림대의 수종은 표고자목인 자작나무, 졸참나무의 번식으로 보충되고, 바람에 꺾이고 난벌되는 수목에 자연발생하는 표고는 극히 우수해서 본래 원주민들은 이것을 채취해 햇볕에 말려 시장에 반출하곤 했다.'(미개의 보고 제주도, 1924, 전라남도 제주도청)

제주산 표고는 광복후 생산량이 크게 불어나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라산 전역에서 33명의 재배자가 호황을 누렸다. 생산량만 보더라도 일제 강점기 1936년 2800kg, 1937년 2600kg, 1938년 3500kg에 비하여 1968년 7만1380kg, 1973년에는 10만680kg까지 늘어났다. 생산된 표고는 주로 동남아, 일본 등지로 수출됐으며 생산량이 많았던 해인 1973년의 표고 수출액은 112만여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6년에 국립공원내 표고재배 중단조치로 11곳의 표고재배장이 철수하면서 이듬해인 1977년에는 생산량이 다시 6만1598kg으로 줄었다. 1993년도에는 얼마되지 않는 연간 표고자목 매각대금의 재정수입을 위해 한라산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으로 인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내에서 벌채가 중단되었다. 표고원목은 600고지 이하의 사유림과 일부 국유림에서의 벌채로 의존하게 됐고 근래에 들어선 표고원목 상당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특별취재팀

## **표고산업 복합적 어려움 직면**

### **자목 구입난 갈수록 심해져..재배기술 등 지원체계 필요**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버섯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조건 역시 버섯 생육에 가장 유리하고, 버섯재배의 역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지역이다. 제주지역은 아열대에서부터 아한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후대가 형성되어 500종 이상의 다양한 버섯이 자생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버섯의 보고'이다.

이 가운데 표고버섯은 가장 대표적인 식용버섯이다. 2008년말 현재 제주지역 표고재배농가는 54농가이다. 지난 2003년 97농가에 비해 5년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재배면적은 75ha. 이 가운데 15개 농가, 42ha가 국유림이고 나머지 39개 농가, 33ha는 민유림이다. 국유림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고관련 단체는 모두 4개가 있



▲한라산 중턱의 표고재배장.

표고생산량을 보면 98년 18만1000kg이던 것이 99년에는 11만4000kg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00년부터는 다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해마다 생산량이 들쭉날쭉이다. 2002년 23만kg이 생산됐으며 2008년에는 19만4000kg 수준이다. 생표고가 건표고에 비해 생산량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조수입은 2002년 32억4800만원에서 2008년에는 22억5200만원으로 줄었다. 수출물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08년 기준으로 1만2000kg이 수출됐다. 수출금액은 미화 17만달러로, 2억3000만원 수준이다.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버섯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섯 재배 환경은 녹녹치가 않다. 표고재배 농가들은 "제주표고산업은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소연한다. 표고자목 구입난과 생산량, 재배기술, 지원도 열악한 실정이다.

표고농가들은 우선 표고 원목인 자목 구입난을 호소한다. 표고버섯의 주 재배지인 한라산 국유림내에서의 벌채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 면적이 생태계보전지구로 묶임에 따라 이 지역내 표고 자목 벌채가 전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유림을 중심으로 공급됐던 표고 원목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중국산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황사 예방을 위해 중국내에서도 벌채가 제한되면서 지금은 국내산에 의존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 표고자목 보유현황에 대한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08년말 현재 도내산은 77% 수준이다. 지난해 표고버섯재배발전연구위원회들의 도외산 자목구입은 1만3000그루에 이른다. 제주지역 국유림내 표고자목 벌채는 2008년말 기준으로 15개소에서 297㎡이며 벌채규모는 1700그루 정도다. 금액으로는 1386만원 규모.

원목 구입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농가들은 도내산 자급률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표고재배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는 있는데 임업기술센터는 없다"고 하소연한다. 임산물이

주요 소득작목인데도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행정의 지원과 조직체계를  
꼬집는 말이다. 기술개발과 버섯 생산기반 확충과 규모화된 농가에 대한 확대 지원체계가 필요  
한 실정이다.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